

『동조자』 속 아시아계 혼혈인 스파이

이효선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강사

비엣 탄 응우옌(Viet Thanh Nguyen)의 소설 『동조자(The Sympathizer)』(2015)는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 통치 하에 있던 시절 프랑스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그는 소설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화자이자 베트남의 스파이로서 미국 중심의 시각으로 씌어 왔던 베트남 전쟁 서사에 저항하는 방식의 글쓰기를 시도하며, 기존에 목소리 없는 피해자란만 여겨져 왔던 혼혈인 및 난민이라는 존재를 새롭게 해석해 낸다. 본 글에서는 혼혈인 주인공이 전쟁 난민 경험을 하며 세계의 주변부로 밀려남에도 그가 가진 서사적 권위를 활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중심부 역사 서술의 틈을 포착하고 균열을 내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그가 혼혈인을 비하하는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했던 바스타드(bastard)라는 모멸적인 단어를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의 중심축에 두고 있음에 주목할 것이다. 그리하여 『동조자』 속 화자의 정체성의 핵심에 있는 혼혈인으로서의 경험이 그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바스타드를 어떻게 수정적 역사 서술의 주제로 세우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아시아계 혼혈인, 아메리시안, 유라시안, 베트남 전쟁, 『동조자』, 비엣 탄 응우옌

I. 들어가며

비엣 탄 응우옌(Viet Thanh Nguyen)의 소설 『동조자(The Sympathizer)』(2015)는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 통치하에 있던 시절 프랑스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주인공이 베트남전 이후 전쟁 난민이 되면서 다층적인 사회적 소외의 경험을 겪은 과정을 서사화하고 있다. 식민 통치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목소리를 잃은 약자로 개별성 및 주체성을 잃어버린 난민이라는 존재는 사회적·역사적으로 철저히 고립되어 왔다. 하지만 『동조자』에서는 그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고립과 소외의 경험이 실제로 한국의 역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거시적 관점에서의 국가 역사 서술에 더해 쉽게 지워지고 잊힌 듯 보이는 개인들의 삶이 그 역사를 어떻게 살아내는

지를 기억하고 기록한다. 그럼으로써 미시적 관점에서의 역사 서술 또한 다면적 역사 이해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한다. 식민지 통치 시기 및 냉전 시대 아시아 국가들에서 태어난 혼혈인들의 사회적 지위 및 그들이 겪었던 다른 현실에 대해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였던 수지 리 게이지(Sue-Je Lee Gage, 2018)는 혼혈인 배경을 가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 그녀는 “혼종의 코리안 아메리카를 찾아서(In Search of Mixed Korean America)”라는 글에서 냉전시대 미국인 군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고 정착한 과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자신과 그녀의 가족들이 한국, 미국, 심지어 한국계 미국인 사회에도 속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면서, 당시 혼혈인들이 겪은 주변 사회로부터의 완벽한 고립이 제국주의자들이 식민 통치의 근거로 내세웠던 순혈주의를 그대로 답습한 데서 비롯된 편견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본 글은 게이지가 지적하고 있는 혼혈인이라는 인종적 소수자들이 역사적으로 복잡한 시기를 통과하며 더욱더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야 했던 현실을 『동조자(The Sympathizer)』 속 혼혈인 주인공이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 읽어보고자 한다. 흥미롭게도 응우옌의 『동조자』 속 1인칭 화자이자 주인공은 탄생부터 베트남의 식민지 역사를 반영하는 유라시안(Eurasian)으로서 양쪽 나라 모두에서 차별받는 존재였으나, 소설의 서사를 이끌어 가는 화자로서 서사적 권위를 가지며 베트남의 스파이로서 미군에 침투하는 역할로 등장한다. 미군과 함께 일하며 기존에 미국 중심의 시각으로 씌어 왔던 베트남 전쟁 서사, 베트남인에 대한 잘못된 재현들에 저항하는 방식의 글쓰기를 시도하며 기존에 얼굴 없는 혹은 목소리 없는 피해자로만 여겨져 왔던 혼혈인 및 난민이라는 존재를 새롭게 해석해 낸다.

화자는 자신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혼혈인으로서의 고립감, 소외감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않음을 인정하지만, 무엇보다 본 글에서는 그가 그려 내고 있는 혼혈인 주인공이 전쟁 난민 경험을 하며 세계의 주변부로 밀려남에도, 자신이 가진 서사적 권위를 활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중심부 역사 서술의 틈을 포착하는지,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역사 서술에 어떠한 균열을 내고 있는지 주목하고자 한다. 유라시안 혼혈인으로서 그가 베트남에서 겪은 차별의 경험은 그가 전쟁 난민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에도 계속된다. 미국에서 그는 아메라시안

(Amerasian), 즉 냉전 시대 미군 아버지와 아시아 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들이 겪는 소외와 함께 베트남 전쟁 난민으로서 미국 사회를 살아가는 어려움까지 체험한다. 하지만 그는 혼혈인인 자신의 존재를 비하하고 무시하려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함께 들어야 했던 바스타드(bastard)라는 모멸적인 단어를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구성하는 데에 중심축으로 사용한다. 백인과 아시아인 사이의 경계에 선 혼혈인,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경계에 선 스파이인 자신의 신분을 바스타드로서 규정하며, 길들여지지 않는, 길들여질 수 없는 그 바스타드를 역사 다시 쓰기의 주체로 세우고자 한다. 편견과 차별의 피해자로서의 혼혈인은 바스타드라 불리며 모욕을 감내해야 했지만, 탈이분법적 글쓰기 주체로서의 바스타드는 중심부의 역사쓰기에 저항하는 글쓰기를 시도하고 베트남전과 베트남 전쟁 난민의 재역사화를 시도하는 주체로 거듭난다. 본 글에서는 『동조자』 속 화자의 정체성의 핵심에 혼혈인으로서의 경험을 두고, 혼혈인인 자신의 다른 이름이었던 바스타드를 어떻게 수정적 역사 서술의 주체로 세우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II. 아시아에서의 식민 역사, 냉전, 그리고 혼혈인의 탄생: 베트남계 및 한국계 유라시안과 아메라시안의 경우

『동조자』 속 베트남계 혼혈인 주인공은 자신을 가리켜 두 마음을 가진 사람, 어떤 이슈든지 양쪽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소설을 시작한다. 이어 그는 자신의 그러한 시각이 미덕이라기보다는 위험을 자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Nguyen, 2015: 1).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혼혈인, 즉 냉전 시대를 살면서 두 마음과 두 생각을 가진 사람, 그리하여 한 편에만 설 수 없으므로 시대와의 갈등을 내포한 그의 존재가 맞닥뜨릴 수 위험을 이해하려면 그가 놓여 있던 복잡한 정치적·사회적 배경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베트남계 혼혈인의 본격적 출현은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 통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크리스티나 퍼포(Christina Firpo, 2010)는 프랑스의 베트남에 대한 식민 통치 기간이었던 1890년부터 식민지 통치 종료 시점인 1956년 사이 베트남 사회 속 프랑스 백인과 베트남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들, 즉 유라시

안들을 프랑스 식민 정부가 프랑스인으로 동화(assimilation)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프랑스의 민간 기구들이 나서서 “버려진 유라시안들(the abandoned Eurasians)”을 “보호(protect)”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혹여 그들이 베트남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고 베트남 사회의 교육을 받아 자신을 버린 아버지의 나라이자 식민 권력인 프랑스에 대해 반감을 갖는 잠재적 폭동 세력으로서 식민 정부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한다. 퍼포는 프랑스계 유라시안들을 대상으로 한 동화 정책은 그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그들을 프랑스 식민정부에 호의적인 시민으로 길러내려는 실질적 목표를 갖고 있었다고 분석한다(Firpo, 2010: 587).

프랑스 식민 정부는 버려진 유라시안 아이들을 그들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데려와 키우며 프랑스 문화 교육을 받게 하여 충성스런 프랑스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교육했다. 퍼포는 베트남의 유라시안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프랑스 주도의 동화 교육을 다분히 식민주의적인 기획이라고 보고 있으며, 덧붙여 프랑스 식민 통치자들의 백인우월주의도 함께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퍼포에 따르면,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버려진 유라시안 아동들을 자신들의 백인 종족 보존에 있어 하나의 인종적 마지노선이라고 보았다. 식민지에서 백인 혈통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다 하얀색 피부를 가진 이들이 식민지 사회에서 더 우월한 입지를 유지하도록 하여 백인중심의 인종 서열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을 프랑스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고 한다(Firpo, 2010: 588). 물론 충성스런 프랑스 시민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고 하여 당장 그들이 프랑스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베트남인 어머니들은 프랑스인 남편에게서 부인으로 인정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첩이거나, 매춘부, 하녀, 혹은 강간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프랑스인 아버지의 임무가 끝나고 베트남을 떠나면서 베트남인 어머니들은 유라시안 자녀들과 함께 버려졌고, 그 아이들은 베트남에서 베트남인으로 길러졌다. 가부장적 사회, 인종적으로 단일 민족사회로 여겨졌던 당시 베트남에서 피부색이 다른 유라시안 자녀들뿐 아니라 부정한 여성으로 낙인찍혀 버린 그들의 어머니들이 부딪혀야 하는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그리하여 첫 번째 인도차이나 전쟁이 끝나고 프랑스와 베트남은 1954년의 협상에서 베트남계 유라시안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공문화한다. 이후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인 아버지를 둔 베

트남계 유라시안들이 18세가 되었을 때에 프랑스 시민권을 주고, 그들이 프랑스에서 살고자 한다면 아버지의 나라로 문제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교육을 받을 기회도 주기로 약속한다(Valverde, 1992: 145).

프랑스 식민 정부가 물러간 이후 베트남은 전쟁에 휩싸이고, 남베트남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군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또 다른 혼혈아동들, 아메라시안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한다. 키우-린 캐롤라인 발베르데(Kieu-Linh Caroline Valverde, 1992)는 프랑스 정부의 베트남계 유라시안 이슈 해법을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 이후 베트남에서 철수할 때와 비교하면서, 미국이 베트남계 아메라시안들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음을 비판한다. 발베르데에 따르면, 1975년 베트남전쟁이 끝난 당시, 아버지 없이 남겨진 베트남계 아메라시안 인구는 3만 명에 달했으며, 그들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아메라시안은 베트남 사회에서 “쓸모없는 혼혈(worthless half-breeds)”로 여겨졌으며, 사회 곳곳에서 그들에게 가해지는 배척을 견뎌야만 했다(Valverde, 1992: 144). 미국은 그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노영순(2021)은 베트남계 아메라시안들이 겪은 아버지의 부재는 미군 당국이 당시 주둔 미군들이 현지 여성과 합법적 관계를 맺는 것을 가급적 막으려 했다는 사실에서부터 예견된 비극적 운명이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미군들이 현지에서 자녀를 갖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전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베트남 여성과의 합법적 결혼을 막은 것이었고, 대신 미군은 모순적이게도 전쟁 임무 수행 중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군기지 주변의 성 산업은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당시 현지 여성과 관계를 맺은 미군들 중 실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이들이 늘어났고, 그들 사이에서 아메라시안 자녀들의 출생이 증가하게 되었다(노영순, 2021: 5). 하지만 전쟁 후 떠난 미군 아버지에게서 자식으로서 존재를 인정받는 경우는 드물었고, 결혼이라는 합법적 관계를 맺은 경우가 아닌 이상 미군 아버지는 양육자로서의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었다. 미군의 베트남 철수 이후 공산화된 베트남에 남겨진 아메라시안들은 미군과 관계를 맺은 부정한 여성으로 낙인찍힌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의 피해자가 되면서 베트남 사회의 주변부로 갈수록 밀려나게 된다. 베트남 정부가 나서서 그들

이 더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정책(Valverde, 1992: 148)이 저항 없이 받아들여질 정도로 그들의 존재는 사회에서 거의 버림받은 상태였다. 그나마 미국 정부에서 이 문제를 인지하고 1982년 아메라시안 법(the Amerasian Act)과 1988년 홈커밍 법(the Homecoming Act)을 도입하면서 아메라시안들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나라인 미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베트남 사회에서의 극심한 소외 경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베트남계 아메라시안의 경험과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한국전쟁 중 혹은 이후에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아메라시안들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게이지는 한국계 아메라시안으로서 본인이 경험했던 혼혈인을 향한 차별적 시선에 대한 배경으로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가 만들어 낸 인종적 편견을 꼽으며, 한국 이민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이자 주재였던 혼혈인과 그들의 소외 경험의 역사화를 시도한다. 게이지는 제국주의 시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우생학을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하는데, 식민 피해 국가와 국민들을 폭력적 방식으로 착취하고 희생시킨 역사적 사실을 가리는 데에 효과적 근거로 활용되었던 비합리적인 인종적 위계질서가 특정 국가의 국민 혹은 특정 인종의 우월성을 보존하기 위한 비이성적 순혈주의의 근거로도 기능하였다고 한다. 실제 나치의 유대인 말살정책의 근거가 되었던 우생학의 영향을 받아 일본 식민 정부는 일본인이 한국인보다 인종적으로 우월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우월성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일본인과 한국인의 결혼을 막음으로써 순혈 일본인 혈통을 지키려 했다.¹ 그러한 제국주의적·식민주의적 전통에서 기인한 비합리적 순혈주의는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난 이후의 한국 사회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쳤고, 그렇게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은 혼혈인에 대한 편견은 미군정 시기에 미군과 기지촌 여성(camptown women) 사이에 혼혈아동들이 태어나면서 더욱 강화된다.² 게이지는 혼혈인으로서 겪은 특수한

¹ 게이지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 통치 기간 동안 일본 민족이 아시아에서 가장 “우월”하다는 우생학적 사고를 퍼뜨리기 시작했고, 그러한 믿음에 근거하여 1940년에 국민우생법(National Eugenic Law)을 통과시켜 한국 여성과 일본 남성이 결혼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금지시킴으로써 일본인 순수 혈통을 보존하고자 했다(Gage, 2018: 311-312).

² 2022년에야 비로소 대법원에서 국가가 미군 주둔지에 기지촌을 설치 및 운영하며 성매매를 조

자신의 경험이 펄 벅(Pearl S. Buck)이 개념화하였던 아메라시안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준다고 이해한다. 벅은 1930년대 중국에서 아시아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들이 처한 사회적 고립의 상황을 목격하고, 가부장적 믿음에 근거하여 그들이 아버지의 나라인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호소하였다. 특히 그녀는 아시아 국가에서 혼혈아동들은 완전히 다른 인간 유형으로 취급받으며, 외양만 다를 뿐 아니라 “비합법적(illegitimate)”(Gage, 2018: 317) 존재로 인식되면서 무차별한 차별에 노출되어 있음을 우려하고 이들의 미국으로의 입장을 장려하였다.³

케이지가 드러낸 아메라시안들의 고립된 삶은 냉전 시대 미군 기지가 주둔하였던 아시아 국가들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메라시안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그들의 삶을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다.⁴ 샌디 폴리슈크(Sandy Polishuk,

장하였으므로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오랜 시간 기지촌 여성들과 그들의 혼혈인 자녀들은 부정한 여성 및 그러한 여성의 자녀들이라는 편견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왔다. 박선애(2004)는 기지촌 문학을 분석하면서 해당 주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들에서 기지촌 여성들이 피해자, 수동적 이미지로 재현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 매춘 여성으로 그려지며 순결한 여성, 헌신적 어머니의 이미지와 대척 지점에 서 있는, 남성주의적 관점에서의 국가 및 가족의 수치스런 역사의 일부로 여겨져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나영(2011)은 그러한 인식을 보여주는 일례로 기지촌 여성이 양공주, 양갈보 등으로 불리며 “우리 사회의 도덕적·사회적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고도 한다(81). 이어 김미덕(2007)은 1945년 이후 발표된 문학 작품에서 기지촌 여성과 아메라시안들의 재현 양상을 연구하며 특히 가부장적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쓰인 작품들에서 그들이 종종 미군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 여성, 그 여성에게서 태어난 자녀로 표현되며 배척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고 지적한다(13).

³ 벅의 가부장적 사고, 미국이 마치 그 아이들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인 듯 해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장려하는 태도 등은 문제적이나, 그녀는 이후 펄 벅 재단을 한국에도 설립하여(The Pearl S. Buck Foundation in Korea) 한국에 남아 있던 혼혈아들이 자립하여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⁴ 예를 들어, 윌리엄 R. 버크하르트(William R. Burkhardt, 1983)는 2차 대전 전후 일본인 어머니와 미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아버지 없이 남겨진 일본계 아메라시안들의 어려웠던 현실을 보여 준다. 그들을 향한 인종적 편견에 더해, 합법적인 혼인 관계를 통해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는 점 또한 그들이 사회적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 부정한 여성이라는 낙인을 달고 살아야 했던 일본인 어머니들, 그들의 하층민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 평생을 사회의 합법적 구성원이 되지 못한 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527). 베트남계 아메라시안들의 삶을 연구한 은와디오라·맥카두(Emeka Nwadiora and Harriette McAdoo, 1996) 또한 아메라시안들과 그들의 어머니들 모두 사회적 편견에 시달렸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베트남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민간인 학살에 책임이 있는 미국에 대한 반감이 베트남 내에 팽배하였고, 때문에 미군과의

2004)은 로버트 맥켈비(Robert S. McKelvey)의 책, 『먼지 같은 삶: 베트남에 버려진 미국의 아이들(The Dust of Life: America's Children Abandoned in Vietnam, 1999)』⁵을 리뷰하면서 그들이 베트남에서 편견과 차별로 인해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살고 있는지를 알리고, 실은 그들의 고통이 “미국의 베트남에서의 모험이 남긴 유산(the heritage of our Vietnam adventure)” 중 일부라고 말한다(Polishuk, 2004: 111). 2009년 스미스소니언 매거진(Smithsonian Magazine)의 데이비드 램(David Lamb, 2009)에 따르면, 1970년에만 하여도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 불운한 아이들을 위한 돌봄과 복지는 미국 정부 책임의 영역 안에서 고려된 바가 없었고 현재도 그러하다”라고 발언하였고, 호치민 시의 사회 복지 담당관은 그로부터 10년 후 아메라시안 아이들을 일컬어 “우리 사회는 이 나쁜 부류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였다고 한다(Lamb, 2009). 그런 맥락에서 폴리슈키가 베트남계 아메라시안들의 비극적 운명과 삶에 대해 미국이 갖는 일말의 책임을 환기시키려 한다는 점은 보다 진일보한 입장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듯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미국의 책임을 물으며 아메라시안들의 아픔에 공감하려는 목소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자격을 부여받고 아버지의 나라인 미국으로 입국한 베트남계 아메라시안의 삶은 여전히 어려웠다. 미국으로 온 아메라시안들 중 3퍼센트만 자신들의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으며, 그들을 위한 관참은 일자리는 전무했다. 많은 이들이 사회에 적절히 편입되지 못한 채 하층민으로 전락하며 약물 중독에 빠지거나, 갱단들과 어울리며 범죄에 연루되어 감옥으로 향하는 이들도 상당수였다고 한다. 게이지는 한국계 아메라시안으로서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도 소외감을 느꼈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현상은 베트남계 아메라시안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 베트남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들의 어머

관계에서 아이를 낳고 남편 없이 남겨진 베트남 여성들은 매춘부와 다름없는 이들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그들의 자녀인 베트남계 아메라시안들은 따라서 매춘부의 자녀들로 여겨졌고, 그들은 베트남어로 “도이-도이(đoi-đoi)”, 즉 “먼지 같은 아이들(children of dust)”로 불리며 “사회적 낙오자(social outcast)”로 전락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고 한다(479).

⁵ 아메라시안 홈커밍 법(Amerasian Homecoming Act)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를 아버지로 두었으면서 1962년 1월 1일부터 1976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베트남인이 해당 법이 규정하는 아메라시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렇게 인정된 베트남계 아메라시안들이 미국으로 입국하면 난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로버트 맥켈비는 해당 법이 시행된 이후 미국에 입국 신청을 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던 베트남계 아메라시안들을 인터뷰하여 책으로 발간하였다.

니가 미군을 상대로 매춘을 하여 혼혈아를 낳았다는 편견이 팽배하였기 때문에, 베트남계 아메리시안들을 그들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Lamb, 2009).

산동 판(Shandong Phan, 2003)은 1989년 흠킴법 시행 이후 미국으로 온 베트남계 아메리시안들은 1962년에서 1975년 사이에 출생한 이들로, 미국에서 1990년대 초반 새 삶을 시작할 당시 그들은 대부분 성인의 나이에 이르렀으며, 베트남에서 겪었던 많은 차별을 뒤로 하고 미국으로 온 만큼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으나, 많은 경우 베트남과 미국 두 나라 사이에서 방황하며 극심한 정체성 혼란을 겪었다고 한다. 램의 리포트에서도 밝혔듯 고작 3퍼센트만이 자신들의 뿌리인 미국인 아버지와 재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재회를 고대하였던 대다수의 아메리시안들은 아버지를 찾지 못하거나 만남을 거절당한 채 한 번 더 자신들이 버려진 존재됨을 절감해야 했다. 어머니의 나라에서 겪은 소외를 아버지의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겪으면서 그들은 상실감, 버려짐, 극심한 외로움과 같은 정신적 문제들로 씨름하여야 했고, 특히 미국 언어 및 문화에도 익숙하지 못한 데다 인종적 소수자의 지위, 거기에 난민이라는 사회적 소수자의 지위까지 더해짐으로써 그들은 가난, 고립, 차별, 언어 장벽, 일자리 부족, 폭력 등 복합적인 문제들에 노출되었고, 자신들의 잘못으로 비롯된 상황이 아님에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오롯이 남겨졌다.

난민 자격을 얻어 미국에 입국하였지만 사회적 소수자이자 하층민으로 미국 정부의 복지 시스템에서도 소외된 채 살아가는 그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실제 미국 내 동남아시아 출신 난민들의 현실을 살펴본 연구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냉전시기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에서 일어난 전쟁 및 학살 등을 피해 난민 지위를 얻고자 한 이들이 미국에서 난민 자격을 인정받고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걸쳐 대거 입국한다. 에릭 탕(Eric Tang, 2015)은 그의 저작 『정착하지 못한: 뉴욕시 하이퍼게토의 캄보디아 난민들(Unsettled: Cambodian Refugees in the New York City Hyperghetto)』을 통해 재정착 과정에서 캄보디아 출신 난민들이 겪은 어려움의 사례를 보여 준다. 그들은 뉴욕시의 브롱스(Bronx) 지역에서 오랜 기간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면서 지역 커뮤니티나 정부 보조 프로그램에서조차도 소외되었다. 탕은 그들이 합법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미국

으로 입국하였으나 이후 이들의 재정착 및 통합을 돕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 정부가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들은 미국 입국 전 난민 캠프에서 지낼 때보다 더 극심하게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 짧은 간격으로 반복되는 이사, 언어 장벽 및 문화 장벽으로 인해 일상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대를 잇는 극심한 가난은 이들을 하층민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 게다가 이들은 미국 내 다른 사회적 소수자 그룹과의 커뮤니티나 네트워크에서도 소외됨으로써 그야말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존재로서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었다. 탕이 보여 준 이들 난민의 미국 입국 과정이나 재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의 모습은 앞에서 판이 설명한 베트남계 아메리시안이 난민 자격을 얻어 미국으로 이주한 후 겪은 현실적 어려움들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III. 『동조자』: 베트남계 혼혈인 및 난민을 기억하기

앞에서 기술한 동남아시아 출신 난민의 미국 내 재정착 경험과 베트남계 혼혈인 난민의 재정착 경험이 공유하는 사회적 고립, 소외, 차별 등의 요소가 두드러지는 것은 특히 그들이 아시아인으로서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라는 사실에 난민이라는 신분이 더해진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아메리시안의 또 다른 특징인 다른 피부색, 즉, 아시아인, 백인, 혹은 흑인이라는 단일한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그들의 혼종적인 인종적 특성은 그들로 하여금 기존 미국 내 아시아인들이 겪는 것과는 다른 성격의 정체성 혼란을 겪게 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비엠탄 응우옌의 『동조자』가 혼혈인과 난민의 경험을 모두 가진 주인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은 베트남전 이후 미국으로 건너 온 베트남 난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그들 중에서도 가장 소외되었던 집단 중 하나인 혼혈인의 특수한 경험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보여 준다. 더욱 특징적인 부분은 그 특수한 경험을 한 이들을 서술의 주체로 세워 기존 역사 서술에 대한 수정주의적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⁶ 『동조자』는 베트남전쟁에 대한 역사

⁶ 예를 들어, 이진근(2021)은 혼혈인 주인공을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게 하는 순혈주의를 소설이

서술의 주도권을 미국이 갖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베트남전에서 패배하였다는 사실, 그것의 결과로 베트남 전체가 공산화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었겠으나, 당시 남베트남인들의 경우 미국과 협조하였다는 전력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북베트남 세력의 핍박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다시 말해 전쟁 난민이 되어야만 하는 운명을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이 무엇보다 두려운 상황이었다. 미국이 전쟁 패배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갖고 베트남 출신의 전쟁 난민들을 지원하였지만 당시 베트남을 빠져 나온 모든 난민들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많은 베트남 전쟁 난민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정처 없이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자신들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으로 난민이 되었음에도 다른 나라들의 국경의 문턱에서 자신들을 구해 달라고 빌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⁷ 그러나 전쟁 패배의 책임, 민간인 희생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음에도 미군과 미국 정부는 이후 역사 서술에서 그들의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며, 그들의 패배를 지우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문제적인 지점은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전 재현에서는 베트남인들이 선하고 불쌍한 남베트남 사람들 혹은 비인간적이고 악마 같은 공산주의자 베트남이라는 이분법적 방식으로만 묘사되며 대상화되고, 편견 안에 갇혀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전쟁 중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이나 전후에 그들이 겪은 엄청난 후폭풍은 가려진 채 미국의 시각이 주로 반영

문제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더해, 특히 주인공이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 혼혈인이자 난민인 그의 존재가 백인과 흑인으로만 대표되는 미국 사회의 인종 관념에 의문을 던지는 역할을 하는 것에 주목한다. 김민희(2021) 또한 다양성을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 중 하나로 꼽는 미국에서 아시아계 혼혈인 남성이 화자가 그의 남성성이 억압되는 경험을 하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화자의 아시아계 혼혈인으로서의 인종적 배경이 그가 미국 중심적 시각을 향해 저항적 목소리를 내는 데에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⁷ 한 예로, 1979년 6월 미국 CBS뉴스의 60 Minutes 리포트에서는 말레이시아의 동쪽 해안으로 베트남전쟁 난민들이 열악한 상태의 보트를 타고 도착하는 장면이 보인다. 이미 같은 장소에는 수천 명의 베트남 난민들이 도착하여 제3국으로의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인터뷰에 따르면 그들 대다수는 미국으로의 입국을 원하고 있고, 무엇보다 미국이 베트남전쟁 난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인 기자가 배를 타고 해변을 떠나는 장면에서 난민 몇몇이 수영을 하여 기자에게 자신들이 미국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쪽지에 적어 전달하려 하는 장면에서 그들의 절박한 상황이 그대로 전달된다(CBS News, 2008).

된 상품화된 전쟁 서사는 할리우드 영화들을 필두로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되고, 할리우드가 가진 문화적 패권을 바탕으로 미국의 시각이 대중의 기억에 우선적으로 새겨지게 된다. 그리하여 역설적으로 미국은 전쟁의 패배자임에도 선한 영웅으로 그려지며 자신들의 베트남전 개입의 명분을 새롭게 세울 수 있었다. 응우옌은 자신의 책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Nothing Ever Dies: Vietnam and the Memory of War)』(2016)에서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실제 전쟁의 모습은 국가 간 현실적 이해의 다툼으로 인명이 무자비하게 희생되는 전투이지만, 이후 자유, 정의, 평화 등 고귀한 가치들로 전쟁의 목적이 미화됨으로써 국가가 도모하는 전투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그리하여 국민들은 국가를 위해 개인의 목숨이 희생되는 것이 필요하거나 당연하다고 믿게 되고,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이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대표한다고 믿게 되는데(Nguyen, 2016: 5), 실제 전쟁을 통해서 무고한 목숨들의 희생으로 인도주의적 가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대표성을 띠는 국가 및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잊히고 지워지는지에 관한 고려는 전무하다.

그런 맥락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윤리적 기억 구성을 위해 중요하다. 응우옌은 과거 및 역사를 재현하는 예술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면서 윤리적이면서도 공정한 기억을 위해 그러한 역사 재현으로서의 예술 생산에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Nguyen, 2016: 17). 그는 특히 예술이 산업화되면서 자본주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정치적인 목소리뿐 아니라 경제적인 힘을 가진 이들이 예술 작품 생산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 그리고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그렇지 못한 소비자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한 메커니즘을 “기억 산업(memory industry)”(Nguyen, 2016: 13)이라 일컬으며, 베트남전 참전에 있어 전쟁의 패배자였던 미국이 베트남전을 기억하는 서사의 주도권을 갖고 그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의 중심에 미국 중심의 시각을 놓을 수 있었던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한다. 즉, 미국이 엄청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문화 패권을 보유하며 그것을 통해 세계의 관객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덧붙여 그는 “공정한 기억은 약자들, 가난한 이

들, 소외된 이들, 다른 이들, 악마화된 이들, 혹은 그들을 변호하고자 하는 이들이 기억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혹은 더 나아가 그것을 장악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Nguyen, 2016: 18)고 주장하며, 그때에서야 비로소 화해 및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그의 소설 『동조자』의 화자이자 주인공이 다층적 소외와 차별을 경험한 혼혈인이자 난민이라는 점, 그의 기억을 기반으로 베트남 전후 역사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작가의 공정한 기억에 대한 위와 같은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단 한 번도 역사 서술의 주체가 될 수 없었던 이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로 하여금 서술자의 권위를 갖게 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이자 소수자인 이들의 시각에서 새로운 역사쓰기를 시도함으로써 보다 균형적 시각을 추구하는 수정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IV. 『동조자』 속 혼혈인 바스타드(bastard)의 역사 다시 쓰기

소설은 먼저 화자이자 주인공인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신이 혼혈인이라는 사실이나 이름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는 자신의 직업부터 먼저 밝힌다. “나는 스파이, 위장잠복요원, 첩자, 두 얼굴의 남자다. 그래서 놀라울 것도 없이, 나는 두 개의 마음을 가진 남자이기도 하다. 나는 만화나 공포 영화에서 오해를 받는 어떤 변종 같은 것이 아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나를 그렇게 대하기도 하지만. 그저 나는 어떤 이슈든 양쪽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Nguyen, 2015: 1)라고 시작하는 자기소개는 자신의 직업이 스파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스스로를 위협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양가적 마음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며 자신의 문제적인 존재 혹은 위치에 대해 말한다. 스파이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양쪽 편을 모두 상대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분명한 사실은 양쪽 중 어느 한 편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이 성공적인 스파이 임무 수행의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화자는 그 전제조건을 배척하는 특질, 즉 양쪽의 관점으로 이슈를 보는 특질을 갖고 있다. 게다가 이분법적 세계 질서가 지배적이던 냉전 시대 속에서 화자가 가진 두 개의 마음, 어떤 이슈든지 양쪽의 관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역설적으로 냉전 시대 스파이로서의 임무 수행에 있어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있다. 자신의 직업윤리와는 대척점에 있는 그 문제적 재능, 정치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그 재능을 그는 “타고난” 재능, 자신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재능이라고 하며,⁸ 그로 인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오해를 받는 어떤 변종”으로서 비쳐지기도 하는 자신을 드러낸다.

그런데 “오해를 받는 어떤 변종”이라는 표현은 그가 가진 특별한 재능에 대해 그의 인종적 정체성이 사람들에게 수용되는 방식과도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다시 말해, “오해를 받는 어떤 변종”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면서도, 곧이어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화자는 혼혈인인 자신을 보는 시선들에 대한 불편함을 동시에 드러낸다. 소설 시작에서 그는 자신의 혼혈인 정체성을 밝히지 않지만, 첫 번째 장에서 다음과 같이 혼혈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감내해야 했던 현실에 대해 덤덤히 서술한다. “나의 어머니는 베트남인이었고 나의 아버지는 외국인이었는데, 나를 모르는 이들과 나를 아는 이들 모두 어린 시절부터 내게 침을 뱉고 바스타드라고 부르며, 내가 바스타드라는 사실을 알려 주기를 즐기곤 했다. 물론 방법은 다양해서, 때로는 내게 침을 뱉기 전에 먼저 바스타드라고 부르기도 하였다”(Nguyen, 2015: 19)라고 하며 자신이 혼혈인임을, 모욕적인 단어인 바스타드가 혼혈인인 자신을 본의 아니게 대변하는 단어가 되었음을 이야기한다. 이 장면은 바스타드라는 단어가 화자 자신에게 아프고 모멸적인 단어였음을 밝히는 동시에, 자신과 같은 혼혈인들이 당시 베트남 사회에서 어떻게 대우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는 트라우마처럼 각인되어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 상처가 되는 바스타드라는 단어를 복잡다단한 자신의 정체성 및 특수한 경험을 드러내는 데에 반복적으로 등장시킨다. 물론 혼혈인이라는 인종적 정체성, 사생아로 태어났다는 점, 그리고 혼혈인이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현실은 바스타드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모두 설명할 수 있기 때문⁹이라고 일차적으로 이해해 볼

⁸ 그는 “사소한 천성 중 하나(one of a minor nature)”,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재능, 자신을 지배하는 재능(The talent you cannot *not* use, the talent that possesses you)”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Nguyen, 2015: 1, emphasis in original).

⁹ 『옥스퍼드 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에서 바스타드(bastard)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혼종적이거나 낯선 종의 사물이나 동물을 지칭하는 의미로 먼저 쓰였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결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기술하였듯 스스로에게 상처와 아픔만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임에도 자신의 정체성과 그 경험의 중심에 바스타드라는 캐릭터를 핵심에 두려는 것은 여전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이다.

흥미롭게도 화자는 상처이기만 했던 바스타드라는 이름에 수행성(performativity)을 부여한다. 양가적인 마음을 가진 스파이로서 냉전시대 양쪽 편 모두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서술을 이어 가며 그는 혼혈인으로서 바스타드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경계에 선 바스타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오해를 받는 어떤 변종”으로 취급받곤 했던 그에게 붙여진 모욕적 이름이었던 바스타드가 냉전 시대 혼혈인, 그리고 이중 첩자인 화자를 만나면서 그가 수행하고 재현하는 바스타드는 더 이상 역사 속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아 있지 않는다. 화자가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바스타드는 경계의 끝에서 중심부가 갖는 재현 정치의 권력에 반복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아가 무모해 보일지라도 혁명적 변화를 꿈꾸는 존재¹⁰로 발전한다. 특히 소설의 마지막에서 베트남 전쟁 난민들인 보트 피플(boat people)과 연대를 꾀하면서 자신의 바스타드 정체성을 인종적·사회적 소수자들과 공유하며 정치적, 역사적 목소리를 갖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그 의미를 확장해 나간다. 이처럼 중심부 권력을 향해 도전적 목소리를 내는 바스타드의 모습은 소설 속에서 특히 그가 화자로서 서술적 권위를 가지며 사회적 소수자들이 경험한 역사를 보여 주고, 기존과는 다른 관점을 독자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화자는 이중 첩자로 미국으로 건너온 이후에도 북베트남과 긴밀히 내통하는 스파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미국의 도움으로 구조를 받은 베트남 전쟁 난민이자 미 정부 지원으로 입학한 미국 대학의 유일한 베트남 출신 학

혼을 하지 않은 관계에서 낳은 자녀들을 가리키거나 누군가를 경멸하고 욕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된다(“Bastard”).

¹⁰ “그러나 우리는 냉소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그렇다, 모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아님을 직면하면서—우리는 여전히 스스로가 혁명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희망적 존재, 혁명을 추구하는 혁명적 존재로 남을 것이다. 비록 우리가 환상에 취한 몽상가라 불린 대도 반박하지는 않을 테지만”(Nguyen, 2015: 382).

생으로서 학교 신문에 실리는 등 그야말로 미국 사회 속 아시아계 모범적 소수자, 즉 모델 마이너리티(model minority)의 표본으로 새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나 그는 미국에서 소수 인종으로서 아시아계 혼혈인들이 겪는 또 다른 차별적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그는 미국 대학에 입학하여 동양학(Oriental Studies)을 전공하는데, 해당학과의 학과장은 미국인이며 백인 남성이었다. 학과장은 아시아계 여성과 결혼하여 혼혈인 자녀를 두었음에도 다른 인종 간 결혼과 그 결혼의 결과로 태어난 혼혈인들에 대해 상당히 문제적인 의식을 드러낸다. 그는 자기 아들의 머리카락 색깔이 금발(blonde)이 아니라고 하며 아시아계 어머니의 검정색 머리 때문에 금발 유전자가 희미해지고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Nguyen, 2015: 63). 그러면서 그는 “토착 식물종과 외래 식물을 섞게 되면 종종 비극적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 자네 스스로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말이야”(Nguyen, 2015: 63)라고 하며 화자에게서 혼혈인, 바스타드로서 겪었던 모욕과 상처로 점철된 트라우마를 다시금 일깨운다. 나아가 그는 “아, 아메라시안, 두 세계 사이에 영원히 갇혀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결코 알지 못하는 사람들! 상상해 보게. 동양과 서양 사이에 서서 자신의 안팎으로 벌어지는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느끼며, 늘 겪을 수밖에 없는 혼란으로부터 고통 받지 않아도 되었다면.”(Nguyen, 2015: 63)이라고 하는데, 이는 화자의 아픔에 일견 공감하는 듯 보이지만, 그는 이미 아메라시안, 즉 혼혈인의 운명은 어차피 비극적이며 그들의 혼종적 정체성은 그 어떤 세계에도 속할 수 없어 한 개인에게 혼란과 고통만을 불러일으킨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한 대학의 동양학과의 수장으로서, 아시아인 부인을 둔 사람으로서 그는 무조건적으로 비백인을 배척하는 무지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자신은 다르다고 생각하겠지만, 자신의 자녀가 금발이 아니라는 점, 토착 식물과 외래종이 결합하면 종종 비극적 결과를 맞게 된다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순수한 백인 혈통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안타까움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위선만 보여 줄 뿐이다. 백인중심주의 및 인종적 순혈주의를 당연시하는 그의 인식은 혼혈인들에 대한 또 다른 위선적 이해로 이어진다. 그는 “동양은 동양이고 서양은 서양이다. 그 둘은 결코 만날 수 없다”(Nguyen, 2015: 63)라는 영국 작가 키플링의 말을 언급하면서, 화자에게 바로 그 지점에서 아메라시안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한

다. 즉, 아메리시안들이 바로 동양과 서양이 공생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키플링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며, 화자에게 “양쪽 세계 사이에서 이상적 통역사, 대치하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줄 친선 대사”(Nguyen, 2015: 65) 역할을 하는 것에서 아메리시안들만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을 찾으라고 제안한다. 학과장의 발언은 화자와 같은 전쟁 난민으로 미국에 들어온 아메리시안들이 새로운 사회에서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미국 사회에 완벽히 동화될, 말 잘 듣는 모범 소수자가 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게 되는 현실,¹¹ 혼혈인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출생 배경이 다르므로 그들 각자의 입장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¹²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각으로, “이상적 통역사” 혹은 “친선 대사”와 같은 역할을 꿈꾼다는 것이 현실적인 의미에서 공허한 말일 수 있음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 실제 혼혈인인 화자의 목소리를 새겨들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비현실적인 희망만을 제시하는 학과장이 결국 아메리시안들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역할은 그가 사용한 언어들, 즉 ‘이상적’ 통역사, 그리고 ‘친선’ 대사와 같은 부분에 함축되어 있다. 다시 말해, 아메리시안들의 사회 통합 문제, 그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동등한 시민적 권리를 누리며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와 같은 부분은 고민하지 않고 그저 이상적이며 선한 의지를 가진 이들로 성장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리하여 사실 학과장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 체제에 도전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존재, 즉 화자가 이중 첩자인 자신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인 모범 소수자와 같은 존재가 되라는 함의를 담고 있다. 전쟁 난민, 혼혈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그의 발언이 화자에게 울림을 주었을 리는 만무

11 실제 화자는 “베트남 공화국 출신의 좋은 시민이라는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즉 모범적 모습의 시민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은 모두 숨겨야 했다고 고백한다: “나는 그 학생들이 보여주는 날것의 정치적 열정이 부러웠다. 베트남 공화국 출신의 선한 시민이라는 역할을 위해 나의 정치적 열정은 깊이 감추어야 했기 때문이다”(Nguyen, 2015: 61).

12 화자가 자신은 엄밀히 말해 아메리시안이 아니고 유라시안이라는, 즉 유라시안이라는 그의 태생과 아메리시안들의 출생 사이에는 다른 역사적 배경이 있음을 지적하지만 학과장은 아메리시안과 유라시안들 모두 혼혈인이라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는 입장만을 보인다: “제가 사실은 아메리시안이 아니고 유라시안이라고 밝힌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학과장은 친절히 나를 보면서 파이프를 꺼내며 말했다. 아니, 이 친구야, 절대 아니지”(Nguyen, 2015: 66).

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모순적인 미국인에 대해 서술하며 그러한 인물들을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노출시키고 있는 화자의 시선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화자는 미국이 구한 불쌍한 베트남 전쟁 난민 중 한 사람으로 미국 정부의 원조를 받아 대학에 들어가 모범생으로 살아가며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은,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미국 사회에 소개된다. 하지만 소설의 화자로서 그는 영웅적 구조자로서의 미국에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대신, 겉으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척 하지만 혼혈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무의식중에 드러내는 학과장과 같은 위선적 미국인의 모습을 보여 주며 미국의 베트남전 영웅 서사에 균열을 낸다. 무엇보다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미국 지식인 사회의 위선을 드러내며 그가 혼혈인으로서 겪은 차별과 편견은 베트남에서나 미국에서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보여 준다. 화자는 학과에서 근무하는 소피아 모리(Ms. Sofia Mori)를 통해 미국 사회의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 차별 문제까지 소환한다. 모리는 일본계 미국인 2세로 미국에서 태어나 고향이 미국이고 모국어도 영어지만, 그녀는 항상 가 본 적도 없는 부모님의 고향인 일본이 자신의 고향일 거라 짐작하는 주변 미국인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토로하며, 자신이 미국 사회에 들어온 스파이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그녀는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백인과 흑인 중심의 미국 사회에 끼어 든 존재, 미국민의 다수인 백인 및 흑인들의 지갑을 탐내는 존재로 여겨진다고 하며,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영원한 이방인 취급을 받는 현실을 지적한다(Nguyen, 2015: 76). 모리의 이와 같은 발언은 미국의 도움을 받은 전쟁 난민이 모범 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난민 배경을 가진 아시아계 혼혈인으로서의 화자가 미국 사회의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고 통합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임을 시사한다. 화자는 이렇듯 미국 사회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겪는 소외를 고발하며 당시 아시아계 전쟁 난민들, 아메리시안 이민자들의 구원자로 그려져 왔던 미국을 향해 도전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난민 배경을 가진 아시아계 혼혈인이라는 화자의 배경이 그의 고향 베트남에서도, 구원자로 그려지던 미국에서도 차별의 이유가 됨을 깨달은 데 더해 그는

미국 내 베트남계 이민자 사회에서조차 자신이 배척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화자가 남베트남 군대에서 상관으로 모시던 장군은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들어와 식당을 운영한다. 화자는 그들 가족과 여전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느 날 장군의 딸과 화자 사이에 묘한 이성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장군은 크게 화를 내며 화자에게 말한다. “아내와 내가 자네를 입양한 아들처럼 생각했다는 것은 잘 알 거야. [...] 그런데 자네와 같은 부류가 우리 딸과 어울리는 걸 우리가 허락할 거라고 생각했나?”(Nguyen, 2015: 291)라는 장군의 말에 화자는 크게 당황한다. 화자가 자신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고 질문하자 장군은 “자네는 멋진 청년이야. 그런데 혹시 몰랐다면 알려 주지. 자네는 바스타드이기도 해”(Nguyen, 2015: 291) 라며 화자로 하여금 더 이상의 대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단어를 뱉어낸다. 말문이 막힌 채, 화자는 신분이 바뀌고 거주 국가가 바뀌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이름을 다시금 맞닥뜨리며 학과장이 말했던 아메라시안의 운명, 그 어떤 편에도 속하지 못하는 비극적 운명을 재차 마주한다. 그러나 그는 이전에 학과장이 제시하였던 이상적 통역사, 친선 대사와 같은 현실적으로 공허한 개념을 내면화하려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결국엔 바스타드로 불리며 차별받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어느 편에도 속할 수 없어 소외되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매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가 만들어 낼 기회를 포착한다. 즉, 어느 편에도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다름을 바탕으로 서술적 권위를 갖고 자신이 경험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한 다른 역사 쓰기 주체의 핵심에 바스타드로서의 화자가 있다.

소외와 고립의 경험에 매몰되지 않고 화자는 지속적으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가볍게 지워버리거나 주변부로 몰아내 온 중심부 역사 재현의 양태를 문제 삼는다. 화자는 할리우드에서 제작하는 베트남전에 관한 영화 작업에 감독을 도와 영화의 사실성을 높여 주는 컨설턴트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역할은 그가 기존에 해 왔던 중간자적 역할과 일맥상통한다. 화자만이 맡을 수 있는 특수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는 현장에서 미군을 구원자 혹은 영웅으로만 그리는 미국 중심적 시각의 역사 재현에 냉소적 입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대부분의 아시아계 배우 및 엑스트라들이 맡게 되는 역할이란 “무고한 시민이거나 베트남콩이거나, 그래서 무고한 시민으로 죽거나 베트남콩이라서 죽는”(Nguyen,

2015: 162) 역으로 모두 같음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 큰 역할은 남베트남 군대의 군인 역할이었는데, 그들 또한 “미국 편이거나 미국의 적이거나, 그래서 미국 편이라서 죽거나 미국의 적이라서 죽거나”(Nguyen, 2015: 162) 하는 역할로 설명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배우들은 당연히 “자유를 위한 투사들”(freedom fighters)로 표현되는 남베트남의 군인 역을 맡고 싶어 하였고, 민족 해방 전선 게릴라들, 즉 베트남 군인 역할은 그것이 그저 영화 속 하나의 역할일 뿐임에도 대부분 맡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차피 베트남들도 “자유를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일 수도 있고 혐오스런 빨갱이 공산주의자일 수도 있는데 그래봤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므로 살해당하는”(Nguyen, 2015: 162) 역할이었다며 결국 돈을 더 얻어 주는 것으로 베트남 역할을 맡으려는 배우들을 찾았다고 한다.

베트남 민간인 및 군인들 역할을 설명하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화자는 약간의 언어유희적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며 자조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그러한 태도의 핵심에는 무엇보다 베트남 사람들이 미국인들의 시각에서 어떤 식으로 단순하게 분류되고 있는지, 그 무지한 이분법적 분류와는 상관없이 미국 편이든 미국 편이 아니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죽음이라는 결말뿐이라는 비극적 사실에 대한 좌절이 자리 잡고 있다. 무고한 시민도, 베트남도, 남베트남 군인도, 민족해방주의자들도 모두 미국의 시각에서 적군 혹은 아군 중 하나로 분류되었고, 적군이든 아군이든 상관없이 그들 모두는 전쟁의 와중에 죽어 나갔던 것이다. 실제 베트남전은 미국이 패배한 전쟁이었으나 적어도 역사 재현에 대한 문화 권력을 미국이 가져감으로써 세계의 관객들은 베트남인들의 베트남전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미국의 입장에서 단순하게 분류되고 재현된 베트남인들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음을 화자는 지적하고 있다. 그렇게 기계적인 분류하에 객체화된 존재로서 베트남인들의 죽음은 냉전 이데올로기와 전쟁 영웅들의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 그 이상의 의미는 갖지 못한다는 차가운 현실을 경계에 선 바스타드 화자의 관점을 통해 드러내며, 미국의 시각을 중심에 둔 이분법적 선악 논리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화자는 한 발 더 나아가 할리우드 버전의 베트남전 영화 제작에서 어떤 이들이 희생되는지, 어떤 장면들이 문제적인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한다. 영화감독은 관객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작은 충격 요법”(Nguyen,

2015: 163)이 필요하다며 강간 및 성고문 장면이 필요하다고 한다. 성폭력 가해자로서 적의 비인간적이고 악랄한 면을 부각시킴으로써 이후 그들을 처단할 미군의 용감함과 영웅적 등장을 보다 강조하며 그들의 개입을 효과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화자는 그런 장면이 반드시 필요하냐고 감독에게 되묻는데, 그의 문제 제기는 끔찍한 장면을 실현해야 하는 배우들, 그리고 자극적인 장면들 속에 묻히고 구조 및 연민의 대상으로만 각인될 베트남인들에 대한 문제적 재현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하지만 감독은 그의 작품이 전쟁에 관한 영화이고 강간은 전쟁 중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하며 기존의 대본을 수정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Nguyen, 2015: 162). 비인간적인 장면을 촬영한 후 고통을 느끼며 눈물과 토사물, 콧물, 땀으로 범벅이 된 배우들의 얼굴을 목격한 화자는 자신의 역할이 작품의 실제성을 높이기 위해 투입된 컨설턴트가 아니라 일종의 왜곡된 “프로파간다에 대항하기 위한 침입자”(Nguyen, 2015: 172)와 같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는 관객들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를 미국의 문화적 자본과 스케일에 감탄하며 일회성으로 즐겁게 소비하고 마는 문화 콘텐츠로 생각하겠지만, 특히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영화와 같은 경우 그것이 다분히 미국적 입장에서 쓰인 미국화된 역사 서술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화자는 영화 대본의 몇 부분을 수정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저 기술적 컨설턴트로서 영화의 사실성을 더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 영화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없었고, 결국 영화를 제작하는 자본 및 권력의 주체가 갖는 힘의 강력함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된다. 거기에 더해 그는 영화의 완성본이 극장에서 상영될 때 고향에서부터 친구인 본(Bon)과 함께 작품을 보는데, 작품 마지막 크레딧에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감독이 화자 자신의 이름을 공적인 기록에서 삭제시킴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없애 버렸음에 분개한다(Nguyen, 2015: 289). 의미심장한 것은 누군가에 의해 쉽게 자신의 존재가 공적인 기록에서 삭제되어 버리는 것에 스스로가 익숙해져 가고 있다고 화자가 말하는 지점인데, 이는 앞에서 그가 영화의 재현에 있어 몇 가지 소소한 부분들을 수정할 수는 있었지만 결국 재현의 권력은 갖지 못함으로 느낀 아쉬움 혹은 절망감과 맞닿아 있다. 게다가 영

화 속 베트남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등장하는 것을 보고 친구인 본은 화자의 역할이 할리우드 감독 및 제작자들이 마련한 게임에 참여하여, 그들이 아시아계 배우들을 포함시키려 노력했다는 자위적 변명을 할 수 있게 도운 것뿐이라고 말하며(Nguyen, 2015: 289) 화자의 역할이나 노고가 갖는 의미를 평가절하한다. 화자는 여기서 다시 한 번 이전에 학과장이 말했던 바스타드의 비극적 운명을 마주한다. 즉, 재현 권력을 가진 이들에 의해 그의 존재는 지워지고, 재현의 대상이 된 이들로부터는 노고와 성취를 인정받지 못한 채 오히려 그들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원망을 들으며, 양쪽 그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속할 수 없는 뿌리 깊은 소외감을 다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화자가 소설의 마지막에서 혁명적인 존재로 남을 것이라 단호하게 말하지만, 재현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 소리 없이 지워지는 위와 같은 모습은 그러한 화자의 도전적이고 혁명적 의지와는 자칫 대치될 수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소설 속 현실에서는 실질적 변화를 도모하지 못하는 좌절을 맛보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재현 권력이 약자들, 소수자들에게 보이는 무자비함을 다각도로 반복하여 보여 주는 화자의 서술이 갖는 의도와 그 영향력에 대해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베트남 출신 혼혈인이자 전쟁 난민인 그가 미국이 가져 왔던 재현 권력 앞에서 겪는 좌절과 절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소설의 독자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무엇보다 독자들로 하여금 재현 권력을 인식하게 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할리우드 감독과의 일화에서도 그의 목소리가 감독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영화 제작 중 감독이 보이는 베트남인, 베트남 사람들에게 대한 무지, 아시아계 배우들과의 소통 부족 등은 감독이 작품과 관객들에 대해 갖는 전지적 권위에 의문을 갖게 만들며, 독자들로 하여금 감독과 그가 만든 영화의 핏진성(verisimilitude) 및 그 진위(authenticity)에 비판적 거리를 가질 수 있게 한다. 앞에서 그가 드러낸 미국 대학의 동양학과의 학과장이 보여 주었던 다양성에 대한 무지와 위선적 이해를 가감 없이 드러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낯설게 하기 효과(distancing effect)와 유사한 방식으로, 화자는 이러한 효과를 혼혈인으로서 자신이 서 있는 경계인/바스타드로서의 위치를 심분 활용하여 영화 제작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모순적 현실들, 그 과정에서 관

심 받지 못한 존재들,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한 존재들에게로 독자들의 시선을 옮긴다. 그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감독의 권위와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하여 그들만의 비판적 시선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영화의 사실성을 높여 주기 위한 컨설턴트 역할을 기대한 감독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배신자, 즉 사전적 의미의 바스타드와 같은 인물로 간주되겠지만, 앞에서 밝혔듯이 그가 구축하려는 바스타드는 인종적·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왜곡된 편견이 재생산되는 재현 정치에 침입하여 휘방을 놓는 인물로서,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자적 입장을 자신이 규정한 혁명적 존재의 전략으로 만들며 그가 가진 특별한 정체성 및 재능을 통해 최선의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V. 결론

화자는 미국에서 스파이 임무를 마치고 공산화된 베트남에 돌아와 재교육 대상이 되어 고문을 받고 풀려난다. 전쟁 중 스파이로 일하면서 민간인 살해, 성고문, 육체 고문 등의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미국 및 남베트남, 그리고 북베트남 양쪽 편 모두에서 일어났던 것에 대해 직접 목격한 것들을 말하고, 전쟁의 와중에는 절대적인 선 혹은 절대적인 악은 존재할 수 없음을 중간자의 입장에서 밝히면서 그는 보트 피플 중 하나가 되어 전쟁 난민으로 제3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난다. 작은 배에 몸을 실은 그들의 모습은 위태롭고 미래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어디에도 속할 수 없었던 바스타드의 정체성을 살아낸 그가 또 다른 제3의 세계를 향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려는 모습은 바스타드로의 정체성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그만의 인생을 보다 더 충실히 살아내기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전쟁 난민들과 함께 배에 올라탄 그가 바스타드 정체성을 온전히 살아내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는 모습에서 있는 그대로의 그의 정체성을 마침내 보듬고 긍정하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려는 그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더불어 지금껏 소외되고, 보이지 않고, 지워지던 그의 존재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의지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보트 피플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동일시하는데, 비극적인 감상 대신, “하

지만 우리는 원시인들이 아니고, 불쌍한 존재들도 아니다. [...] 우리는 가장 희망적 존재로, 혁명을 추구하는 혁명가로 계속 남을 것이다”(Nguyen, 2015: 382)라며, 그가 살아내고 있는 바스타드의 정체성은 기존에 혼혈인이자 난민들에게 덧씌워졌던 안타깝고 불쌍한 피해자가 아닌,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혁명가로서의 모습임을 재차 강조한다.

혼혈인 스파이로서 미국에 건너온 후 아메라시안의 경험을 공유하며 그는 그 복잡하고 어려운 경험의 중심에 바스타드를 두었다. 혼혈인인 그의 정체성을 모욕하고 부정하는 단어로, 한때 그에게 상처만을 안겨 주는 말이었으나, 그는 소외감으로 인한 상처 속에 매몰되거나 어느 한 편에라도 속하고자 의미 없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소설 시작에서 말했듯, 그는 양쪽을 모두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뜻하지 않은 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편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디에도 설 자리는 없다고 절망하는 대신, 그는 그러한 바스타드 정체성이 가능케 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제3의 길을 찾아 떠난다. 바스타드 화자는 더 이상 전쟁 난민, 혹은 보트 피플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역사에 기억되는 존재로 남지 않고, 역사를 자신의 입장에서 다시 쓸 수 있는 혁명적인 존재로 자신을 재정의하며, 자신의 시각에서 쓰인 고백록인 이 소설을 일종의 혁명의 증거로서 독자에게 남긴다. 그리고 그는 “수정되지 않을 이 마지막 문장을 쓰는 순간에도 우리는 단 하나의 유일한 사실에 대해 확신하고 있음을 고백한다—죽음이라는 형벌 앞에서도 우리는 이 한 가지 약속은 지킬 것을 맹세한다: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Nguyen, 2015: 382)라고 분명히 선언한다. 화자는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이 쓰는 문장의 주어를 “나”(I)에서 “우리”(we)로 바꾸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신과 같은 운명의 배를 타고 떠나는 보트 피플로 확장시키고 그들 사이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어진 삶과 운명의 주체가 자신임을, 같은 배를 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떠나는 “우리”임을, 복수의 바스타드들과 함께 그 삶을 살아낼 것이라는 사실과 그들의 기록은 결코 수정되거나 지워질 수 없음을 밝히며, 그들이 살아내고 살아갈 혼혈인 바스타드를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역사 다시 쓰기의 주체로 세운다.

참고문헌

- 김미덕. 2007. “한국 문학에서 기지촌 성매매 여성과 아메라시아에 대한 연구.” 『아시아 여성연구』 46(2): 7-54.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141455>(검색일: 2024. 4. 9.).
- 김민희. 2021. “비엠탄 응웬의 『동조자』: 베트남 전쟁과 베트남계 남성 주체의 남성성 문제.” 『새한영어영문학』 63(4): 1-20. DOI: 10.25151/nkje.2021.63.4.001.
- 노영순. 2021. “아메라시안(Amerasian)의 존재 양태와 국제입양(1945-1975): 베트남-미국 혼혈아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157: 1-34. DOI: 10.18622/kher.2021.03.157.1.
- 박선애. 2004. “기지촌 소설에 나타난 매춘 여성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24: 279-300. UCI: G704-000571.2004.24.006.
- 신민정. 2022. “대법 “국가가 성매매 조장...미군 ‘위안부’ 피해자에 배상해야.” 『한겨레』 9월 29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0624.html (검색일: 2024. 4. 9.).
- 이건근. 2021. “비엠탄응웬의 『동조자』에서 경계미학 읽기.” 『베트남연구』 19(2): 155-190. <https://doi.org/10.31535/VS.2021.19.2.155>.
- 이나영. 2011. “기지촌 여성의 경험과 윤리적 재현의 불/가능성: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역사 쓰기.” 『여성학 논집』 28(1): 79-120. DOI : 10.18341/wsr.2011.28.1.79.
- Burkhardt, William R. 1983. “Institutional Barriers, Marginality, and Adaptation Among the American-Japanese Mixed Bloods in Japa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42(3): 519-544. <https://www.jstor.org/stable/2055516> (검색일: 2024. 4. 9.).
- Firpo, Christina. 2010. “Crises of Whiteness and Empire in Colonial Indochina: The Removal of Abandoned Eurasian Children from the Vietnamese Milieu, 1890-1956.” *Journal of Social History* 43(3): 587-613. <http://www.jstor.org/stable/20685426> (검색일: 2024. 4. 9.).
- Gage, Sue-Je Lee. 2018. “In Search of Mixed Korean America.” *A Companion to Korean America Studies*, 304-332. Rachael Miyung Joo and Shelley Sang-Hee Lee, ed. Brill.
- Lamb, David. 2009. “Children of the Vietnam War.” *Smithsonian Magazine*. <https://www.kci.go.kr>

- www.smithsonianmag.com/travel/children-of-the-vietnam-war-131207347/
(검색일: 2024. 4. 9.).
- McKelvey, Robert S. 1999. *The Dust of Life: America's Children Abandoned in Vietnam*.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Nguyen, Viet Thanh. 2015. *The Sympathizer*. Grove Press.
- _____. 2016. *Nothing Ever Dies: Vietnam and the Memory of War*. Harvard UP.
- Nwadiora, Emeka and Harriette McAdoo. 1996. "Acculturative Stress among Amerasian Refugees: Gender and Racial Differences." *Adolescence* 31(122): 477-487. <https://www.proquest.com/scholarly-journals/acculturative-stress-among-amerasian-refugees/docview/195936354/se-2> (검색일: 2024. 4. 9.).
- Phan, Shandon. 2003. "Vietnamese Amerasians in America." *Asian-Nation: The Landscape of Asian America*. <http://www.asian-nation.org/amerasians.shtml#sthash.ECKy5nUf.dpbs> (검색일: 2024. 4. 9.).
- Polishuk, Sandy. 2004. "Review: *The Dust of Life: America's Children Abandoned in Vietnam* by Robert S. McKelvey." *The Oral History Review* 31(2), 109-111. <http://www.jstor.org/stable/3675387> (검색일: 2024. 4. 9.).
- Tang, Eric. 2015. *Unsettled: Cambodian Refugees in the New York City Hyperghetto*. Temple UP.
- Valverde, Kieu-Linh Caroline. 1992. "From Dust to Gold: The Vietnamese Amerasian Experience." *Racially Mixed People in America*, 144-161. Maria P. P. Root. Sage Publications, ed.

〈1차 자료〉

- 한국 펄벅 재단. 2007. Pearl S. Buck Foundation Korea. <http://www.pearlsbuck.or.kr/>
(검색일: 2024. 4. 9.).
- "Bastard." 2023. *Oxford English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www.oed-com-ssl.access.yonsei.ac.kr/dictionary/bastard_n?tab=meaning_and_use#26393178 (검색일: 2024. 4. 9.).
- CBS News. 2008. "June 24, 1979: Boat People." *60 Minutes*, 20 Sept. 2008, <https://www.cbsnews.com/video/june-24-1979-boat-people/> (검색일: 2024. 4. 9.).
- "South Viet Nam: The Girls Left Behind." 1956. *Time*. 10 September. <https://content.time.com/time/subscriber/article/0,33009,808572,00.html> (검색일: 2024. 4.

9.).

US Congress. 1987. *H.R. 3171 – Amerasian Homecoming Act*. <https://www.congress.gov/bill/100th-congress/house-bill/3171> (검색일: 2024. 4. 9.).

Abstract

A Mixed-Race Asian Spy in *The Sympathizer*

Hyosun Lee Underwood International College, Yonsei University

Viet Thanh Nguyen's novel *The Sympathizer* (2015) features a mixed-race narrator born to a French father and Vietnamese mother while Vietnam was under French colonial rule. The first-person narrator and main protagonist in *The Sympathizer* is a Eurasian whose presence reflects Vietnam's colonial history, and he has suffered discrimination because of his biracial background. Becoming a refugee after the Vietnam War, he is further pushed to the periphery of the world. However, owning the narrative authority and working as a spy, he challenges the US-centered narrative of the Vietnam War. This paper argues that the narrator positions his experience as a mixed-race person at the core of his identity so that he offers a revisionary historical narrative about the Vietnam War and its refugees. Thus, the paper looks at how he interestingly centers on the word "bastard," which people used to call him to disdain and ignore his mixed-race identity. Next, the paper explores how he newly defines his identity as a mixed-race person and establishes the "bastard" as the subject of rewriting history. Therefore, the paper emphasizes that regarding the biracial "bastard" spy, the narrator attempts to re-historicize the Vietnam War and its refugees instead of presenting a mixed-race person who has been invisible to national history as a victim of discrimination.

Keywords | Mixed-Race Asians, Amerasian, Eurasian, Vietnam War, *The Sympathizer*, Viet Thanh Nguyen